

통계자료에 의한 섬유산업의 이해

유 혜 경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부교수

Quantitative examination of the Korean Textile Complex

Ye, Hae ky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ctors of Korean textile complex based on various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The sectors in the textile complex differed in many aspects. Man-made fiber industry showed capital-intensive characteristics even though most of the sectors in the textile complex were labor-intensive. Textile industry is composed of weaving and spinning, knitting, dyeing and finishing sectors and even within the textile industry, each sector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each others. Weaving and spinning sector seemed to require relatively high capital investment, while dyeing and finishing was very labor-intensive. Labor-intensive apparel industry has faced decrease in labor-productivity while wage has increased. Slow growth in labor productivity in Korean textile complex was shown to be a more problem than increase in wage or ratio of labor cost to value added. Apparel companies appeared to be in better financial states than the textile companies, even though the exports of apparel products have decreased in the 1990s. However, in overall the financial states of the Korean textile complex were not as strong as those of the other manufacturing sectors.

I. 서 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섬유산업이 1980년을 통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고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특히 의류 등의 섬유 완제품이 섬유류 수출을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1989년을 정점으로 의류 수출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1992년에는 섬유원료·사·직물의 수출이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수출을 능가하였다.

그동안 의류교역은 각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환경과 같은 시장경제적 요인 이외에 Multi-Fibre Arran-

gement(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하여 전세계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1961년 미국의 섬유수입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를 위하여 GATT의 한시적 예외조항으로 시작되었던 선진국의 섬유류 수입제한은 1974년 MFA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체계화되었고, 그 후 새로운 MFA 조약이 체결될 때마다 더 많은 종목과 국가를 포함함으로써 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Big 3(홍콩, 대만, 한국)에 대한 연간 수입량 증가율을 크게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MFA는 WTO체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폐되도록 하고 있다. MFA가 우리나라 섬유수출을 제한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섬유무역의 권위를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수출국의 기

특권을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WTO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우리나라 섬유산업에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

섬유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섬유원료 및 화섬, 방직, 제직, 편직, 염색가공, 봉제까지를 포괄하여 지칭하며, 섬유기계제조업 등 관련산업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종을 포괄하는 섬유산업의 각 생산업종은 산업적 특성(예를 들어 자본비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한 기업이 원료제조부터 완제품까지 또는 공정의 대부분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형태도 아니고, 부품을 조립하는 형태도 아닌, 독립된 산업체간의 협력과정을 통하여서 완제품이 생산되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섬유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섬유산업에서는 업종간의 유기적인 연관이 매우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 되며 또한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섬유산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패션의 중요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은 의류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제품과 무형의 생활양식에서도 패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패션의 영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패션이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의류를 비롯한 섬유제품은 매우 가시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입하고 즐기며 사용한다는 점에서 패션현상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패션의 중요성은 섬유산업을 다른 제조업과 차별화시키는 또 하나의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섬유산업을 패션산업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진 섬유 산업은 지금 매우 빠른 변화 속에서 미래 섬유산업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계, 정부, 학계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예를 들어, 섬유산업의 르네상스정책²⁾).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그런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섬유산업을 업종별로 정의하고, 각 업종들

의 특성과 경영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섬유산업통계와 통계청의 한국통계월보에 실린 자료를 기초로 하는 이 연구는 섬유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 섬유산업을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분석하는 데 밑받침이 될 것이다.

II. 섬유산업의 구성과 특성

산업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³⁾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중분류 D17 섬유제품제조업(manufacture of textiles), 중분류 D18 의복과 모피제품제조업(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and fur articles), 그리고 소분류 D243 화학섬유제조업(manufacture of man-made fibres)을 포괄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섬유제품제조업은 방직(spinning), 직조(weaving), 섬유가공업(finishing), 표백과 염색, 편직(knitting)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섬유 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영어권에서는 textile industry를 이와 같은 좁은 의미의 섬유산업 즉 섬유제품제조업을 지칭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섬유산업을 의미할 때는 이와외의 차별을 위해 textile complex 또는 textile pipeline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의복과 모피 제품제조업은 흔히 의류산업이라고 일컬어지며, 영어의 'apparel industr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D18 의복 및 모피 제품제조업에는 의복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피가공업과 기타 모피제품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화학섬유제조업(D243)은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속하며 합성섬유(24301)와 재생섬유(24302) 제조업을 포함하여 보통 화섬산업이라고 불리운다. Fiber industry, 또는 천연 섬유가 농축산물이므로 이와외의 차별을 위해 man-made fiber industry라고도 한다.

섬유산업은 이와 같이 여러 업종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의류산업을 제외한 up-stream, 즉 섬유원료, 사, 직물을 생산하는 업종(화학섬유제조업과 섬유제품제조업)만을 일컫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가장 좁은 의미로는 섬유제품제조업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의 혼돈은 자료 수집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는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나 시기에 따라서 산업분류체계를 달리함으로써 통계자료들간의 비교나 자료의 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섬유제품 수출입 현황⁴⁾에서 섬유류는 섬유원료, 사, 직물과 섬유제품으로 나뉘며, 이 때 섬유제품은 의류와 기타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통계청 산업분류³⁾에 의한 섬유제품이 섬유사·직물 등을 지칭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된 것이며, 또한 다른 통계⁵⁾에서 섬유제품이 textile에 해당되는 것과는 상치되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섬유산업은 섬유산업의 여러 업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류산업, 화섬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의에 따른다.

우선,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자면, 섬유산업의 총부가가치액은 1995년에 8조 4020억원으로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액의 9.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섬유산업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1970년대에 섬유산업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액의 16.9% (1975)를 생산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섬유산업의 각 업종별로는 섬유제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제조업의 10.6% (1975년)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으나 1995년에 6.2%로 감소하였고, 의류산업인 경우 같은 기간동안 6.3%에서 3.5%

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섬유산업 이외의 다른 업종의 제조업이 후발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섬유산업의 규모를 고용 인원수에서 살펴보자면, 섬유산업에는 약 50만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으며(1994년), 이는 총 제조업 종사자의 약 11%에 해당한다. 섬유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액에서 보다 고용인원 면에서 큰 것은 섬유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을 시사한다.

섬유산업내에서 업종별 특성을 노동장비율, 기계투자효율,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살펴 보았다. 표 1을 보면 노동장비율이 다른 제조업보다 뒤지고 있으며, 증감의 폭이 전 제조업에 비하여 큰 편이다. 이렇게 증감의 폭이 큰 이유는 섬유산업에 포함된 각각의 업종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화섬산업은 다른 섬유업종이나 제조업에 비하여 노동장비율이 높은 업종이고 화섬산업의 노동 장비율이 특히 높았을 때에 (1992년과 1994년), 섬유산업의 노동장비율도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섬이 장비산업임을 입증하며, 섬유산업의 노동장비율은 화섬산업의 노동장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 및 방적업종도 노동장비율이 다른 섬유산업 업종이나 제조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업종으로, 1989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특히 모방업종이 노동장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사 및 방적, 화섬을 제외한 다른 섬유산업 업종은 노동장비율이 낮은 편인데, 특히 의류업종

〈표 1〉 노동장비율

(단위 : 1,000원)

	제조업	섬유 산업	제사 및 방적				직물	염색 가공	편직	기타 섬유	의류	화섬
			면방	모방	화섬방	제사 및 견방						
1980	5,689	5,001	7,234	6,706	5,245	5,897	7,657	2,666	1,371	1,723	1,067	NA
1985	11,395	8,121	11,722	16,096	7,415	6,573	10,576	7,622	4,767	4,676	2,800	NA
1989	21,000	20,020	18,160	44,286	11,689	5,409	15,607	12,810	8,111	8,111	5,498	NA
1990	24,696	14,270	32,780				16,334	9,760	13,923	17,398	7,518	23,075
1991	29,651	16,347	37,740				20,669	12,635	12,972	15,686	7,490	48,530
1992	36,273	36,963	48,145				28,752	15,447	15,117	21,297	11,013	67,602
1993	43,170	29,988	43,410				39,720	17,110	15,680	24,960	11,670	45,600
1994	49,120	40,942	55,240				49,660	22,100	17,220	32,970	17,870	88,540

$$\text{노동장비율} = \frac{\text{유형고정자산} - \text{건설가계정}}{\text{종업원수}}$$

NA : not available

이 가장 낮은 노동장비율을 보이고 있다. 의류산업이 신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널리 알려진 인력을 활용한 봉제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패션의 변화가 중요한 것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의류업종을 비롯한 편직과 기타 섬유업종에 있어서 1980년대 이후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설비투자가 되어 왔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노동장비율에 관련되어 기계투자효율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섬유산업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기계 투자효율이 낮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노동 장비율이 낮았던 화섬과 제사 및 방직업종의 효율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의류산업은 섬유산업의 어떤 업종나 제조업 전체를 비교했을 때도 기계투자에 비하여 부가가

치 생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류산업이 고가의 기계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류업종의 기계투자효율이 다른 섬유산업업종나 제조업업종을 능가하여서 크게 증가하였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앞서서 의류산업의 노동장비율 증가가 다른 산업업종을 능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최근 10여년 간의 의류산업에서의 기계투자는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류업종 외에 편직업종도 기계투자효율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섬유업종은 제조업 평균에 비하여 기계투자효율이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의 기계투자효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에 비하여 섬유산업에서는 기계투자효율의 변화가 심하고 1992년이래 감소하고 있다.

〈표 2〉 기계 투자효율

	제조업	섬유 산업	제사 및 방직				직물	염색 가공	편직	기타 섬유	의류	화섬
			면방	모방	화섬방	제사 및 견방						
1980	140.1	103.7	73.9	125.7	231.8	85.8	147.7	124.3	390.0	594.4	486.5	NA
1985	172.0	174.1	86.9	129.0	142.1	262.3	152.5	279.1	339.0	293.7	897.6	NA
1989	182.9	159.8	158.5	74.1	160.0	458.4	178.7	190.5	546.3	257.4	995.1	NA
1990	174.8	163.7	96.7				193.1	237.0	283.4	148.6	1,054.8	126.3
1991	182.0	216.0	102.9				201.8	205.0	342.7	188.8	1,205.7	159.9
1992	170.9	220.0	97.6				192.2	209.0	464.2	163.4	1,172.5	171.1
1993	157.1	154.0	113.8				120.8	233.7	420.4	160.3	689.2	184.4
1994	175.4	134.9	101.8				107.9	212.5	496.5	150.3	974.8	93.5
1995	195.0	161.2	122.2				124.9	157.6	570.7	217.2	1,424.5	105.5

기계 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기계장치}} \times 100(\%)$
 NA : not available

〈표 3〉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제조업	섬유* 산업	제사 및 방직				직물	염색 가공	편직	기타 섬유	의류	화섬
			면방	모방	화섬방	제사 및 견방						
1980	4,029	3,152	3,399	5,031	4,535	2,353	3,054	1,457	1,972	3,100	2,065	NA
1985	8,210	6,109	5,316	10,211	5,617	5,225	6,852	6,304	5,874	8,743	4,280	NA
1989	16,465	11,200	11,241	20,548	10,474	8,600	12,283	8,467	10,244	7,207	8,700	NA
1990	18,250	12,931	16,849				12,539	10,531	10,231	11,534	10,563	16,106
1991	22,060	15,382	20,493				15,543	12,066	11,143	12,643	10,957	36,640
1992	25,044	18,947	24,265				18,919	14,397	13,091	15,695	14,163	49,420
1993	27,674	19,006	22,661				21,963	17,695	13,832	18,842	13,590	34,151
1994	33,244	23,718	27,819				25,982	16,899	13,277	22,222	19,112	44,872
1995	40,555	27,391	30,859				28,783	17,604	15,485	24,586	22,380	49,574

NA : not available

*1987년 이후 자료는 화학섬유 포함.

표 3에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이 나타나 있다. 섬유산업 전체로는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고, 특히 기계투자효율이 높았던 의류와 편직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화섬인 경우 종업원당 부가가치생산액이 매우 높아서 제조업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표 2와 표 3을 종합해 볼 때, 화섬을 제외하고는 섬유업종은 대체로 부가가치 생산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의류업종에서 두드러져서, 기계나 다른 장비보다 고용인의 기술이 생산에 중요한 요소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별 변화를 보면 염색가공과 의류업종에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과 다른 섬유산업업종을 능가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염색가공과 의류업종이 전통적으로 노동에 의존하는 업종이기는 하지만, 장비와 기계 투자 등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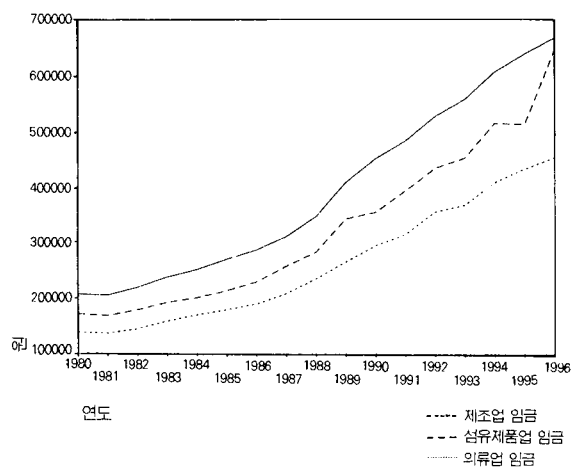
III. 섬유산업의 노동력 문제

섬유산업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력에 관한 여러 변화는 이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에 걸쳐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렇게 중요한 노동력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섬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노동력의 중요성을 우선 살펴보자면, 표 4에는 인건비 구성율이 나타나 있다. 인건비가 총 제조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제조업과 섬유산업 전반에 걸쳐서 증가하였고, 섬유산업에서의 인건비 비중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각 업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염색가공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섬유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두 업종은 앞에서 나타났듯이 기계투자율과 노동장비율,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이 낮은 편이고 인건비의 비중은 커서,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의류산업인 경우 인건비 상승이 큰 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80년대

〈표 4〉 업종별 인건비 구성(%) (인건비대 총제조비)

연도	제조업	섬유 산업	제 사 및 방 적				직물	염색 가공	편 직	기타 섬유	의류
			면 방	모 방	화 섬 방	제 사 및 견 방					
1980	12.5	13.4	13.2	17.1	9.3	18.4	14.3	25.7	12.7	23.9	15.0
1985	12.7	14.5	14.6	11.3	11.0	18.7	13.1	22.6	14.1	20.5	15.2
1989	16.3	17.2	15.6				15.8	31.8	14.2	27.5	18.0
1990	17.3	17.3	16.8				16.5	31.2	13.9	21.7	17.8
1991	17.4	17.4	16.9				15.3	30.7	17.5	22.8	18.3
1992	18.0	18.9	18.0				17.7	25.6	17.9	23.1	19.2
1993	18.3	21.5	19.1				26.4	33.8	15.9	23.1	27.7
1994	18.3	19.1	17.8				19.1	33.5	14.9	17.7	21.3
1995	17.5	17.3	15.6				16.9	34.1	16.7	17.0	19.9

이후 의류산업의 인건비 비중은 1993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조업에서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80년도 이후 제조업에서의 인건비 비중은 의류산업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특성에 비해 섬유산업에서의 인건비 비중은 다른 제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 수준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도표 1에 나타난 노동자 월평균 실질임금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비하여 섬유제품업에서, 섬유제품업보다는 의류산업에서의 임금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섬유제품업과 의류업에서는 많은 수의 노동인원을 고용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인건비 비중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섬유제품업과 의류산업으로 대표되는 섬유산업이 외국인을 포함한 비숙련공과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섬유제품과 의



**1996년 자료는 10월까지 임금의 평균값임

〈도표 1〉 산업별 실질임금 변화(198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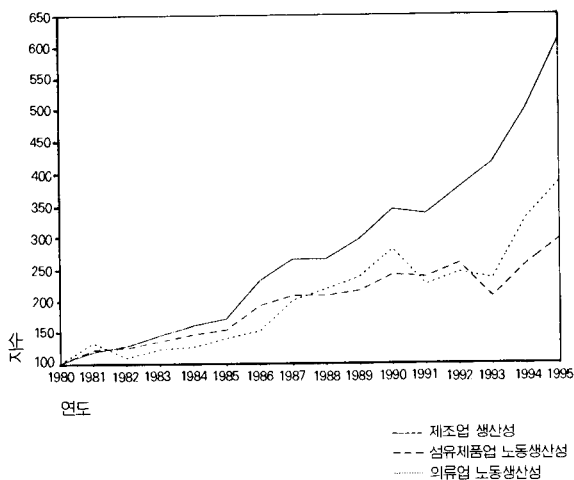
류산업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제조업 노동자 실질임금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인건비 상승이 섬유산업에서만 국한되거나 섬유산업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제조업에서의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 속에서도 섬유제품 제조업에서는 1996년에 임금이 크게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임금상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따라서 인건비 상승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인건비에 따른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도표 2를 살펴보면 노동생산성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였고 섬유제품업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1993년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의류산업에서는 1990년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던 노동생산성이 1990년 이후로 감소하여 부진을 면하지 못하다가 최근 호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섬유제품과 의류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는 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생산성 증가는 또한 임금상승과 비교되어야 한다. 도표 3에서는 제조업에서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지수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1980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임금상승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월등히 높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도표 4에 나타난 섬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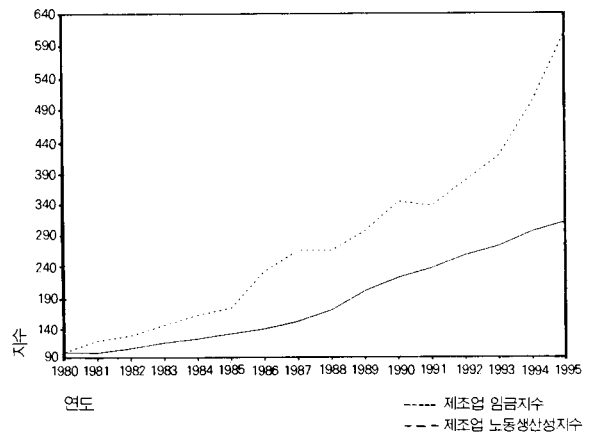
조업 임금 및 노동생산성지수를 살펴보면, 8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생산성이 임금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나 그 후에는 임금이 더빠르게 상승해서, 1992년에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후에는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도표 5에 보이는 의류업에서는 1990년까지는 노동생산성이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하였고, 그후 답보 상태였던 것에 비하여, 임금은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여 임금 상승폭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래에 섬유 산업에서 임금상승이 큰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는 인건비 자체의 상승이나 인건비 비중이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기 보다는, 섬유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다른 제조업에 못 미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수출중심으로 발전한 배경으로 수출실적은 섬유산업의 지표로 많이 사용되어 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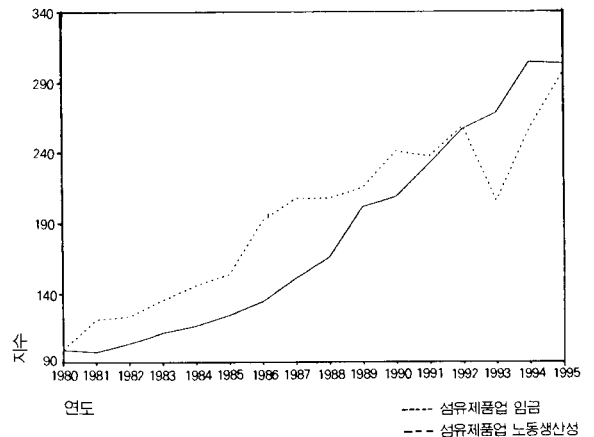


**1993년 이후 자료는 추정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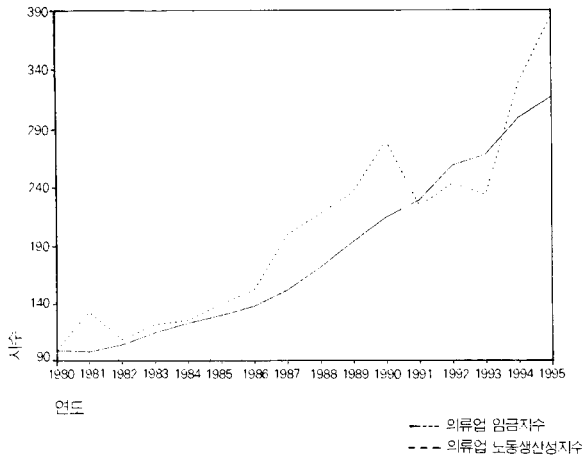
<도표 2> 산업별 노동생산성 지수(198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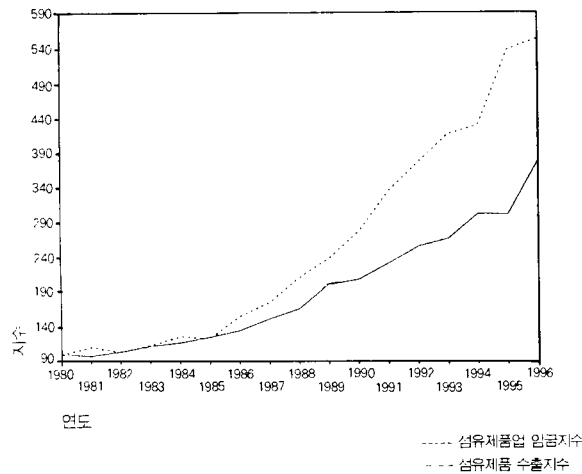
<도표 3> 제조업 임금 및 노동생산성 지수(1980 = 100)



<도표 4> 섬유제품업 임금 및 노동생산성 지수(198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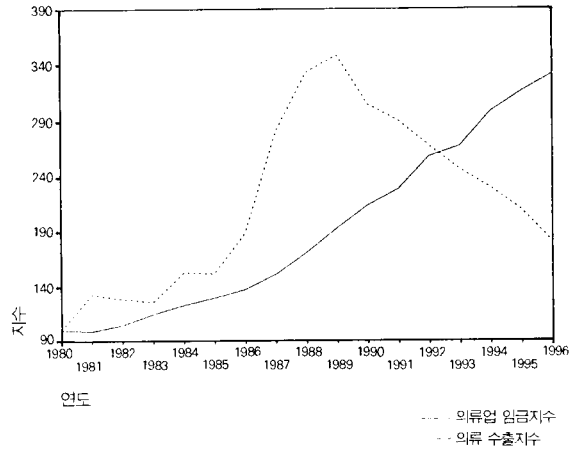


〈도표 5〉 의류업 임금 및 노동생산성 지수(1980 = 100)



〈도표 6〉 섬유제품 수출 및 임금지수(1980 = 100)

다. 이렇게 중요한 수출 실적과 인건비를 연관지어 보면, 도표 6에서와 같이 섬유제품은 1985년까지는 수출과 임금이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수출이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의류수출과 의류업 임금 변화를 도표 7에서 보면, 수출은 임금보다 1985년까지는 작은 폭으로, 그 후 1990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는 의류수출이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의 의류수출실적만을 보면, 수출과 임금은 역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계속 증가하였던 80년대에도 수출은 계속 증가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임금이 의류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인건비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수출에는 다른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되며, 따라서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국소적이고



**1996년 자료는 예상값임.

〈도표 7〉 의류 수출 및 임금지수(198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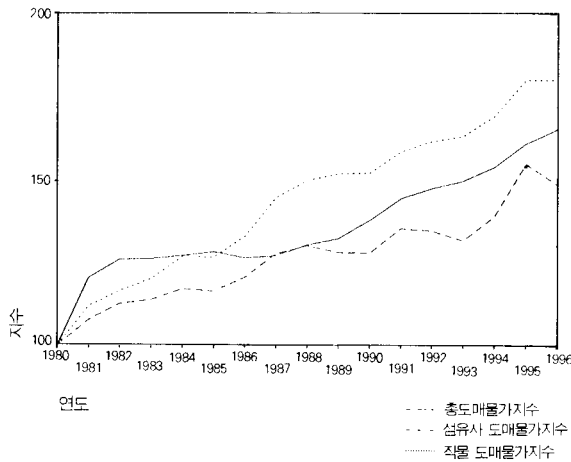
한시적인 해결책보다는 체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섬유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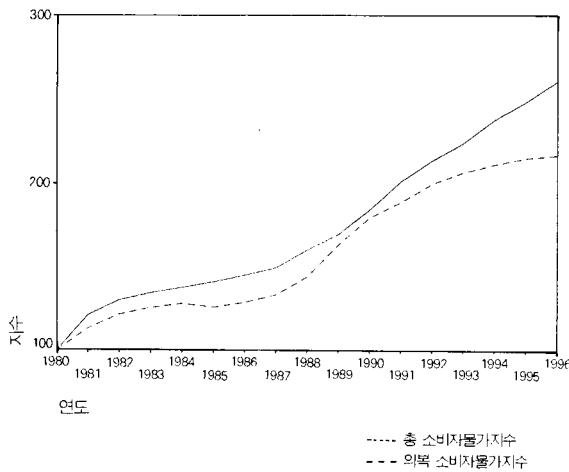
섬유산업의 현황은 제품의 가격, 수출실적, 수익률들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섬유제품산업인 경우 생산품이 중간재로 대부분 사용됨으로 이들의 도매물가지수를 살펴보면(도표 8), 섬유사 도매가격은 1988년까지 총도매물가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후는 총도매물가지수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직물가격은 1985년까지 총도매물가지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하고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총도매물가 수준보다 높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섬유사와 직물의 가격상승 차이는 같은 섬유제품업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비하여 도표 9에 나타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의복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88년부터 90년까지의 기간동안은 빠른 상승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총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에 의복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은폭으로 상승 또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복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섬유사 도매물가지수와 비슷한 유형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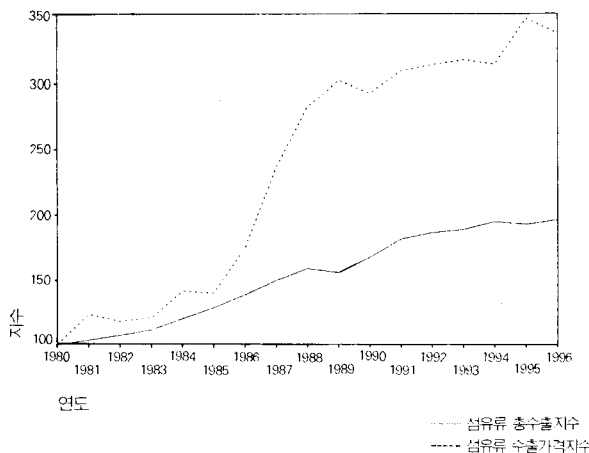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출가격과 수출실적을 살펴보면(도표 10), 1985년까지 섬유류 수출은 수출가격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후 1989년까지는 수출의



〈도표 8〉 도매물가지수 (1980 = 100)



〈도표 9〉 소비자물가지수 (1980 = 100)



**1996년 자료는 예상값임.

〈도표 10〉 석유류 수출 및 수출가격지수 (1980 = 100)

증가가 수출가격의 증가보다 월등히 앞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출가격보다는 수출물량이 증가하여 수출 실적이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석유류 수출은 약간의 감소 또는 정체현상

을 보여왔고, 그런 수출변화와는 달리 1989부터 91년까지는 수출 가격은 계속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수출물량의 증가보다는 인건비등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에 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이 수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91년 이후에는 수출가격이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음으로 섬유업체들의 순이익율을 살펴보면(표 5) 섬유산업이 다른 제조업종들과 같이 1980년대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 제조업보다는 늦게 회복단계에 들어섰으나, 1980년 후반에는 호황을 누렸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섬유산업 업종은 매년 순이익률의 변화가 매우 심해서 역동적인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역동적 특성은 기업경영에 큰 압박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제조업의 경영상태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1994년부터 회복하였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1990년대 이래 계속 경영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제사 및 방직업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유산업 안에서도 각 업종마다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섬유산업의 다양성을 확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의류산업인 경우 경기의 주기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 업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며, 내수의류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많은 의류업체들이 새로 설립되고 있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의류업체들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표 6에 나타난 총

〈표 5〉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 부가가치^a 생산액(%)

연도	제조업	섬유* 산업	제사 및 방직				직물	염색 가공	편직	기타 섬유
			면방	모방	화섬방	제사 및 견방				
1980	-0.8	-4.3	-10.8	-0.8	0.5	-97.4	-28.6	-26.0	15.4	1.6
1985	9.4	6.0	0.2	9.5	12.1	-2.4	3.2	15.4	1.2	10.2
1989	10.4	10.9	13.3				-0.2	19.3	8.7	15.1
1990	9.3	6.2	3.5				0.8	6.7	11.8	12.1
1991	8.6	4.9	5.1				-5.7	-7.0	5.1	11.7
1992	6.3	5.3	9.0				0.1	4.3	5.2	11.2
1993	6.5	3.0	0.7				6.3	7.1	7.0	4.0
1994	10.4	4.4	2.4				6.3	0.8	1.9	9.3
1995	13.6	2.2	1.0				16.9	5.1	6.8	10.2

a: 1993년 이후는 경상이익 대 부가가치 생산액

*1987년 이후 자료는 화학섬유 포함

〈표 6〉 총 자본 경상 이익률

	섬유제품산업(D17)			의류산업(D18)			인조섬유(D243)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1991	0.83	1.10	-0.34	2.05	3.39	0.25	4.29
1992	1.01	1.05	0.80	-0.40	0.20	-1.23	4.53
1993	0.53	-0.15	2.30	1.25	1.15	1.36	3.04
1994	0.63	-0.14	2.42	2.69	2.32	3.33	0.98
1995	-0.32	0.00	-1.05	2.85	4.64	-0.65	1.29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본 경상이익률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1990년 초기에는 화섬산업의 이익률이 섬유제품산업이나 의류산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1994년부터는 의류산업의 이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섬유제품산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류산업과 섬유제품산업인 경우 모두 매년 이익률의 변화가 크고, 섬유제품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이익률이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의류산업인 경우는 대기업이 대체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이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순 이익률을 살펴보았을 때와 같이 경상이익률면에서도 의류산업의 경영상황이 섬유제품산업의 경우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섬유산업을 정의하고 각 업종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섬유산업은 그 중요성이 최근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의 7.9%, 고용인원에 있어서는 14.9%을 차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이 부가가치 생산액에서보다 고용인원수에 있어서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섬유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여러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업종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을 크게 섬유제품제조업, 의류산업, 화학섬유제조업으로 나누었을 때 섬유제품제조업과 의류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두드러지지만, 화학섬유제조업은 자본과 기술의 집중도가 큰 산업업종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설명하고 획일적인 발전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섬유제품산업(textile industry)인 경우 특히 제사 및 방직, 직물, 염색가공, 편직 등의 다양한 산업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섬유제품산업은 의류산업보다는 기계 및 설비투자가 많이 되어 있으나 화섬산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 생산에 많은 부분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섬유제품산업 중에서는 제사 및 방직업종에서 설비투자가 높은 편이며 염색가공과 편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염색가공업종의 설비투자가 낮은 것은, 이 업종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1967년부터 1979년 기간동안 시행된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나 1979년부터 1986년 동안의 섬유공업 근대화 촉진법을 통한 정부지원이 주로 방직, 화섬, 제직업종에 집중되었고 염색가공업은 지원대상업종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작았던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⁶⁾. 염색가공업종은 총제 조비에 대한 인건비 구성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섬유제품제조업 업종은 기타섬유류를 제외하고는 다른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제품업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다른 제조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하였고, 임금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높지 않아서, 노동생산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제조업의 경우 수출은 계속되고 있으나, 수익률에서는 수출이 격감하고 있는 의류산업이나 화섬업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유제품제조업업종의 순이익은 전반적인 경기의 주기안에서도 매우 증폭이 커서, 섬유제품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섬유제품산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그 산업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은 것은 섬유제품업체들의 경영합리화, 구조조정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류산업(apparel industry)은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출이 격감하는 등 매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의류산업인 경우 기계투자가 높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며, 이 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제조업은 물론이고 섬유산업 안에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산업인 경우 노동장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계투자 효율 또한 크게 증가하여서, 1980년대 이후 기계설비 투자가 많이 되었고 이에 따른 효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안, 최근 의류산업의 인건비 상승폭이 노동생산성 상승폭을 넘어섰으나, 최근에는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수출이 90년대에 들어 격감하고 있으나, 의류업체들의 이익률은 다른 섬유산업 업종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경영상태는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류산업이 섬유제품제조업보다 먼저 발달하고 먼저 쇠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박진수⁷⁾는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1990년대 이후에 급격한 수출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1980년 초반부터 발생한 조정기적 측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의 호황은 이른바 3저 현상(원화의 평가절하, 유가하락, 금리하락)이라는 우발적인 조건 때문이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이상현상에 의한 수출호황후에 의류수출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내수시장의 팽창은 의류업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을 추측된다. 그러나, 이렇게 의류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던 내수시장에 수입개방화와 유통시장개방을 인하여 수입의류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내수시장에만 의존한 경영전략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섬유산업은 다양한 업종들의 집합체이며, 각 업종들의 특성과 현재의 경영상황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는 노동집약적 성격이나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섬유산업은 업종에 따라 낮은 투자에도 높은 부가가치 생산과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생산도 경영이윤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섬유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경쟁국에 대해 비교우위에 놓여 있으며⁸⁾, 제품수명주기상 성장기 상태에 있는 품목들도 많이 있다고 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잇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섬유산업 각 업종이 내실 있는 발전을 해야 할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업종라도 뒤떨어지는 경우 섬유산업이 업종간의 연결흐름에 의존하는 특성상, 섬유산업 전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조사는 기초자료를 통하여 섬유산업을 살펴보았으나, 자료와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실증연구를 위하여서는 섬유산업 전반에 걸친 통계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수집기관, 섬유산업종사자 그리고, 교육기관과의 용어정의와 토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섬유산업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한 단계 넘어선 도약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섬유관련 교육기관과 정부에서는 섬유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Blokker, N. and Deelstra, J.(1994), Toward a termination of the Multi-Fiber Arrangement, *Journal of World Trade*, 28(5), 97-118.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0년대 섬유산업의 중흥을 위한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1994, 10.
3.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대한통계협회, 1991.
4. 섬유제품 수출입 현황, 한국의류산업협회, 각호.
5. 한국 통계 월보, 통계청, 각호.
6. 서제일, 2000년대를 향한 염색 가공업의 발전 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45호, 1995.
7. 박진수, 국제화시대 맞이한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21호, 1994.
8. 이영무, 제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94.
9. 하명환, 한국 섬유산업의 전략군 분석과 해외투자 성과,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3.

(접수일자 : 1997년 1월 3일)